

휴양지서 작품 감상... '미술관 바캉스' 떠나요

고흥 '남포미술관'

고흥 팔영산 자락에 위치한 남포 미술 1번지 남포미술관은 오는 9월22일까지 조각가 박승모씨를 초대해 '환(幻)'전을 연다. 알투미눔 와이어와 스테인리스 철망으로 만든 대형 크기의 환조와 부조 11점을 만날 수 있다.

환조 작품은 박씨가 피아노나 색소폰 같은 사물을 정교하게 본을 뜬 뒤 와이어를 칭칭 감아 표현한 것들로, 특유의 입체감이 인상적이다. 2m가 넘는 대형 작품을 마주하는 관람객들은 작품 원형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얇은 스테인리스 철망을 수십 겹으로 겹쳐서 인물의 얼굴을 표현한 '마야' 시리즈는 작품 가까이 다가서면 형상이 사라졌다가 멀어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으로 실재와 허상의 경계를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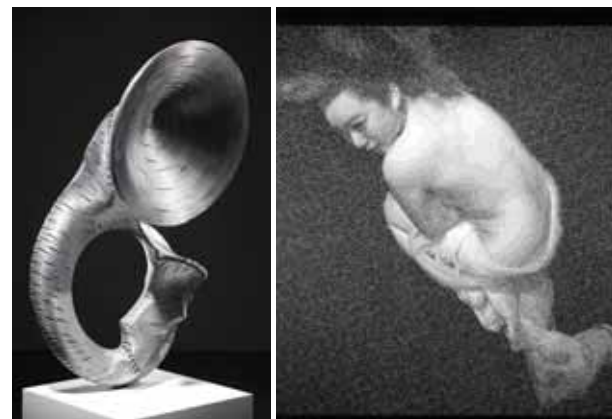
남포미술관에서는 팔영산 자락 아래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다도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팔영산자연휴양림과 한때 수십여 개의 암자를 거느리기도 했던 능가사, 고운 모래가 깔린 넓은 백사장과 해안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남열해수욕장이 있다. 문의 061-832-0003.

미술관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

마른 짐마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기승이다.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떠날 것을 계획하지만 황금 같은 여름휴가를 물놀이로만 보내기에는 무언가 아쉽다. 전남지역 피서지에는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미술관들이 많다. 먼 곳을 돌아가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여름, 기보고 싶은 미술관과 보고 싶은 전시를 소개한다.



장전미술관



박승모작 'SOUSAPHONE'(좌) 'MAYA'



마사미 하야시작 'RING OF THE WIND'

담양 '대담미술관'

담양에서는 여름 대나무 숲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다. 대숲에 들어서면 시원한 그늘과 함께 바람에 부딪히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한다. 대숲을 즐겼다면 차 한잔과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담미술관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대담미술관은 오는 29일까지 2013 레지던시 결과발표 '마사미 하야시'전을 연다.

한지를 꼬아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한 'Ring of Wind' 등 일본 작가 마사미 하야시가 한국에 머물면서 창작한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마사미 하야시는 3살 때 청력을 잃고, 신체적·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일본 화단에 발을 들여놓은 작가다. 문의 061-381-0082.

진도 '장전미술관'

진도에는 미술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다. 서예가 장전 하남호 선생이 만든 장전미술관(구 남진미술관)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과 함께 꽃과 나무,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서는 울곡 이이, 우암 송시열, 추사 김정희의 글과 다산 정약용의 매화 그림, 운보 김기창과 흥선대원군의 글과 그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오지호 화백 등의 서양화도 전시되고 있다. 도자 전시실에는 신라시대 토기, 고려청자, 청동자기, 분청사기, 조선백자, 현대 자기에 이르기까지 도자가 8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는 장전 선생과 가족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기획전 '장전가(長田家)의 향기'가 열린다.

인근에 해수욕과 함께 물이 빠지면 바지락 등 조개를 쉼 수 있는 금갑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금갑해수욕장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문의 061-543-0777.

여수 '예술마루'

여수예술마루 전시실에서는 오는 28일까지 '디지털 명화-100년의 산책' 전시회가 열린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구인성, 김용호, 최종범, 김영식씨 등이 동서양이라는 공간과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 세계의 명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피카소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거장 살바도르 달리, 시각에 따른 빛의 변화 순간을 포착한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 장난기 가득한 사물의 조합으로 일탈을 유도하는 시적 이미지의 창조자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디지털 언어가 입혀졌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이다. 4인 가족은 1만5000원에 즐길 수 있다. 문의 061-808-708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당신은 범인을 찾았나요

연극 '그놈을 잡아라' 18일까지 동산아트홀

당신은 범인을 찾았는가?

지방 소도시에서 한 여인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함께 있던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연쇄 살인일 거라고 단정하는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글을 쓴다는 한 남자가 취재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오지만 그에게도 무언가 심상찮은 기운이 느껴진다.

웃음과 스릴러가 어우러진 연극 '그놈을 잡아라'가 한 여름 무더위를 식힌다. 1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특별한 무대 장치의 변화 없이 '대사'만으로 20여년의 세월을 건너 뛰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터라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집중해 관람하는 건 필수다.

스릴러 치고는 다소 느슨한 구성이 아쉽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다양한 역할로 수시로 변신하는 남녀 배우의 연기는 웃음을 책임진다.

행여 범인을 찾지 못했다 해서 실망하지는 말 것. 공연 후 배우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연극은 지난 2010년 대학로에서 초연 후 호평이 이어져 대학로에 '그놈을 잡아라' 전용관 드림시어터를 오픈했다.

티켓 가격 2만5000원.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듣는 동화이야기

김정아 광주대 교수 오늘 영산포초서 '어린이 음악학'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음악학'

2010년부터 매년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해온 김정아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가 네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9일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시청각실 오후 7시 30분, 10일 나주 영산나루 오후 8시 30분.

이번 음악회에서 김씨는 모차르트의 초기 피아노 소품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연주하고 소프라노 남하린 씨의 이야기와 함께 빨랑의 '코끼리 왕 바바'를 무대에

올린다.

빨랑의 '코끼리 왕 바바'는 장 드 브누프(1899~1937)의 동화에 음악을 붙인 곡으로 부모없는 아기 코끼리가 곳곳하게 삶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또 아이들과 함께 오는 어른 관객을 위해 유명 뮤지컬 수록 곡들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10-6331-6334. /김미은기자 mekim@

“광주 배우러 왔습니다”

부산 청소년 120명 방문...5·18 묘지 등 참배

부산 청소년들이 광주의 문화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부산 청소년 120명은 9~10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묘지를 참배하고 대인예술시장, 폴리 등을 둘러본다.

이들은 9일 광주폴리 7개 작품을 둘러보며 '빙고게임' '단체 줄넘기' 등 미션을 완수하는 '광주폴리 미션투어'에 참가한 뒤,

오후 7시부터 '한(限)을 주제로 열리는 남량특집 대인예술(夜)시장에 참여한다.

10일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플래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월광주' 프로그램을 통해 80년 5월 항쟁을 기념한 30년 넘도록 기다리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극단 토박이의 연극 '마중'과 5·18민주화운동 영상 자료 등을 감상한다. 이어 광주 5·18 광주민주화묘지를 방문해 직접 만든 종이 꽃을 헌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소서점 살림시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19~23일 무료 교육

출판계와 서점가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서점을 살리기 위한 무료 교육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교보문고 등 3개 대형서점과 손잡고 중소서점 경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 서점 전문인력 양성'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 강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첨단 종합서점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전문가들이 서점 마케팅 전략, 경영혁신 사례, 출판 트렌드 등을 강의한다.

첫 강의는 19일 정석희씨가 강사로 나서 '지역서점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20일 박옥균 씨가 '출판트렌드의 형성 및 베스트셀러 분석', 21일 손재현 씨가 '서점 마케팅 전략 및 고객 감성 서비스' 등을 강의한다.

정원은 각 교육과정 20명씩이고 '독서인' (www.read-kpipa.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교육현장에서 가능하다. 문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재양성팀 02-3153-2793, youngmanga@kpipa.or.kr

/박성천기자 kkipark@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천연원목 **빈티지**가구 / 소파 / 대리석식탁

CASATO

까사또 (가족/이태리어 상표등록)

광주점 **금호월드 7층 45호** ☎062)350-8333

금남가구거리점 (유동사거리 옆) ☎062)381-3388